

# [새사연 20대 정치행태 분석 프로젝트]

## 스마트폰과 트위터가 20대의 투표율을 상승시켰을까?

---

2010.10.12 | 박용진 안재혁\_새사연 20대 프로젝트팀

---

### 목 차

1. 20대 투표율 상승 원인, 스마트폰·트위터? NO!
2. 스마트폰·트위터 정말로 20대 투표율 올렸나?
3. 오후에 투표율 오른 것은 스마트폰과 트위터 때문?



---

<http://saesayon.org>

## 20대 투표율 상승 원인, 스마트폰·트위터? NO!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많은 언론의 예상과 반대로 야권이 승리했다.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한 배경으로 높은 투표율을 꼽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상승원인은 대부분 20, 30대의 투표율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51.6%를 기록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33.9%에 그쳤다. 이에 반해 지난 선거보다 전체 투표율이 3%가 오른 54.5%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투표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 정부와의 소통부재를 지적해왔던 20, 30대의 투표율 증가는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에서 20대 투표율 상승의 원인을 두고 분석한 여러 가지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활용이다.

많은 언론들은 20대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트위터를 통해 투표인증샷이나 투표독려글 등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친근한 연예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투표인증샷이나 투표독려 이벤트를 하면서 20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화가이자 설치미술가로 유명한 임옥상은 트위터를 통해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며,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밝혔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투표 동참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됐다.

작가 이외수는 투표당일 오전 10시30분에 ‘투표 완료!’라는 제목으로 아내와 함께 투표소 앞에서 활짝 웃는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그의 트위터에 “포기해 버린 당신의 주권은 포기해 버린 순간부터 쓰레기보다 못한 가치로 전략해 버립니다.”라고 적으며 젊은이들에게 투표 할 것을 호소했다.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활용이 20대의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는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비롯해 진보언론까지 동일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선거 다음날 「'노풍'북풍'도 아닌 '트위터'가 유권자 움직였다」라는 제목으로 20, 30대의 투표율증가의 동력에는 트위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위터가 막판 투표율 높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트위터가 20대의 오후 투표율을 상승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역시 「6.2지방선거 이

변` 트위터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트위터 파워`가 정치 심판관? 」을 통해 트위터가 이번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2002년 `문자`...2010년 `트위터`가 선거 바꿨다」라는 기사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실었다.

진보언론역시 트위터의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해 미디어오늘과 같은 인터넷신문까지 20대의 투표율 상승에 주목하며 이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우리를 위한 선거” 젊은 한표 눈떴다 », 「트위터·스마트폰이 선거문화도 바꿨다」와 같은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한겨레도 「“오후 2시 넘어서며 이상했어요...20대가 하나둘씩...”」에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 스마트폰·트위터 정말로 20대 투표율 올렸나?

하지만 지방선거이후 언론에서 한결같이 보도하는 트위터의 영향이 과연 20대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해보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든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자의 38.2%가 2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하지만,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이 41.4%, 학생이 25.2%이다. 또 일반폰 사용자는 학생이 37.6%, 사무직이 28.5%이다.

이는 20대 초반의 학생들보다 20대 후반의 사무직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장만하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일 것이다.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 과연 스마트폰이 20대 투표율상승을 주도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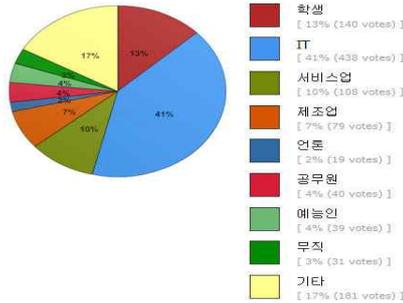
트위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트위터는 가입할 때, 이름과 이메일의 정보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 정확히 연령대별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명 트위터리안이자 아나운서인 김주하씨의 트위터에서 연령대별 설문조사결과를 볼 수 있는데, 총 2294명이 참여한 결과, 30대가 무려 58%에 이르는 반

면, 20대는 26%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IT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41%, 학생 13%, 서비스업 10%순이다.



당신의 직업은? 기타의 경우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By @kimjuha | Twtpoll created more than 12 months ago | This poll is closed. See results below!

Total: 1,075 votes



출처 : 김주하트위터

간단히 정리하면 20,30대 IT 사무직이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국내 트위터 통계 사이트인 '오이코랩'에 따르면 16

일 기준으로 한국인 트위터 이용자수가 109만 8,904명으로 나타난다. 김주하 트위터에서 조사된 20대 비율(26%)로 20대 이용자수를 계산해보면 28만 5,715명이다. 20대의 트위터 이용자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18대 총선 기준으로 726만 명이었던 20대 유권자수와 비교해보면 사실상 20대는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0대의 투표율상승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트위터 사용이 20대 투표율 상승을 주도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거당일 날 우지은(대학생·20)은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 글이나 투표인증샷을 보지 않은 채 오후에 투표하러 갔다”고 말했다.



▷ 오후에 투표율 오른 것은 스마트폰과 트위터 때문?

언론들이 스마트폰과 트위터가 20대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는 다른 근거로는 “다른 연령대보다 오후에 20대 투표율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론의 관련보도를 살펴봤듯이 선거 당일에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 활동이 영향을 미쳐서 오전까지 투표에 미온적이던 20대들이 오후부터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 2002년 대선, 2006년 지방선거의 시간대별, 연령별 투표율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2년 대선 때와 2006년 지방선거 때에도 20대 투표율은 1시 이후에 급증했다. 이전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만 발생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에 20대 유권자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그래프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투표율과 비슷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12시를 넘어선 시점부터 투표율이 급상승해서 오후 3시경에 정점을 찍었다.



[2002년 지방선거 시간대별 20대 투표자 서울지역 분포도]

또한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거일의 여가행태분석」을 보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오후투표율이 43%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20대의 오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효과보다는 휴일을 활용하는 세대별 차이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표참여자들의 선거일 활동을 살펴보면 20대는 수면 및 휴식(27.5%), 업무(26.9%), 친구·친지방문(19.2%) 순으로 나타난다. 업무(26.9%)는 타 연령대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면 및 휴식(27.5%)과 친구·친지방문(19.2%)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다. 60대 이상도 수면 및 휴식이 36%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실제투표시기와 비교해보면 20대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은 오전에 투표

(71.9%)를 하고 오후에 수면 및 휴식(36%)을 취하지만, 20대는 오전에 수면 및 휴식(27.5%)을 취하고 오후에 투표(43%)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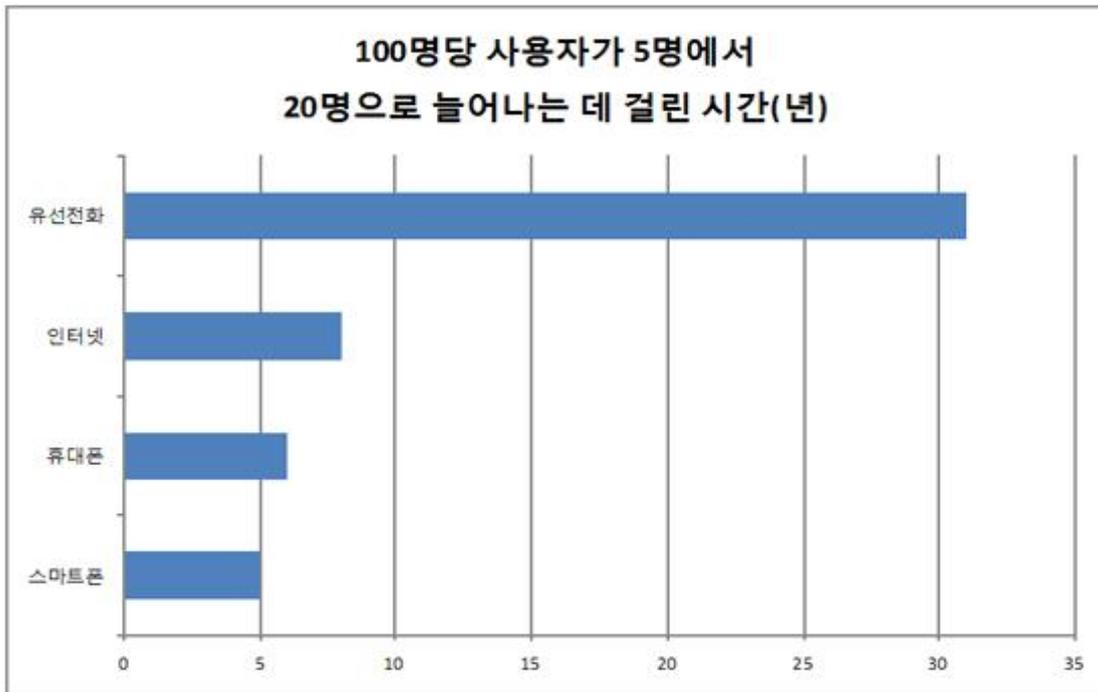
※ 선거 후 실제 투표시기 (연령별,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오 전	57	58.8	61.8	72.4	71.9
오 후	43	41.2	38.2	27.6	28.1

※ 선거 후 투표참여자 선거일 활동 (연령별,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집 안 일	8.8	28.3	25.9	31.4	31.2
업 무	26.9	20.7	28.1	27.6	11
수면 및 휴식	27.5	23.1	19.1	16.2	36
TV 시청	6	6	7.8	9.5	6.2
야외나들이	7.7	9.2	9.6	4.8	4.6
친구/친지 방문	19.2	5.6	7.3	7.7	7.8
기 타	3.9	7.2	2.2	2.8	3.2

결국 위에서 살펴봤듯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중요한 승리원인으로 꼽히는 20대의 투표율 상승은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주도하지 않았다. 보수신문, 진보신문, 경제신문 가릴 것 없이 모든 신문들이 20대가 트위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번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보도했다. 하지만 트위터와 스마트폰의 20대 이용자는 적었고, 투표율이 오후에 상승한 이유도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주도한 것이 아닌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20대의 투표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그러나 결코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정치계에 미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위의 자료와 같이 휴대폰이나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더욱 빠르다. 다음 선거인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1,000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속에 여러 정치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트위터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위터와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정치계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후 선거에서 트위터와 스마트폰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선거법 개정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